

하나님 사랑

2025
Vol. 277

이웃사랑



발행일
2025년 9월

발행처
예수병원

발행인
예수병원장 신충식

편집인
김병선(홍보실장)

기획
예수병원 홍보실

사진
김내성

디자인
두인

표지그림
안혜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YouTube Instagram 홈페이지

04

예수병원 공공의료사업

Since 1898
지역민과 함께, 늘 곁에 있는 병원

06

CENTER

소아청소년과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실한 사랑으로 돌보는



10

MEDICINE ①

소아청소년과 박신애 과장
마음보다 몸이 빨리 자라는
성조숙증

12

MEDICINE ②

소아청소년과 호요한 과장
조금 일찍 세상에 나온
이른둥이

14

TEAM ①

43병동

낮설지만 편안하도록
마음도 주의깊게 살피며



16

TEAM ②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가장 작은 생명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18

선교국 소식

24

MISSION COLUMN

이비인후과 한주희 과장

나를 새로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26

국내기독병원 소개

광주기독병원 선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다

28

ALUMNI

김귀완내과 김귀완 원장

정도(正道)를 걷어가는
병원으로 남아주기를

30

언론 속 PMC

PMC NEWS

36

DONATION

후원 안내

38

SCHEDULE

진료일정 안내

Since 1898

지역민과 함께,
늘 곁에 있는 병원

예수병원 공공의료사업

지역응급의료센터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장애친화의료기관 장애친화산부인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지역모자의료센터
전북권역 난임 임신부 심리상담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지역책임의료기관 · 지역환자안전센터 ·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2027년 완공 예정)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실한 사랑으로 돌보는

소아청소년과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는 1955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Frank G. Keller 박사가 내디딘 걸음에서 시작됐다. 이후 무려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지역 아동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다. 지난해에는 호남지역 최초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고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문의 진료를 통해 소아 응급 진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진료도 환경도 아이들 중심인

현재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일곱 명의 과장이 외래와 입원 진료를 비롯해 특수 클리닉, 특수 검사 등을 시행한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 14세까지 감기 같은 흔한 경증 질환부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을 다룬다. 소아 소화기병 클리닉, 소아 혈우병 클리닉,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 소아 뇌전증·발달장애 클리닉, 소아 심장 클리닉, 소아 콩팥질환 클리닉, 저신장·성조숙증을 담당하는 성장클리닉,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등 소아청소년기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 시설을 갖추

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다. 소아청소년과 외래는 병원 안에서 유일하게 따듯한 햇살이 직접 들어오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환한 햇살에 마음마저 밝아지는 이곳은 2020년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화사한 색감의 동화 속 공간으로 거듭났다. 천정에 떠가는 뽀롱뽀롱 새하얀 구름과 파란 비행기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심장 초음파실, 호흡기 치료실, 주사실, 모유 수유실 등을 갖추고, 외에도 아이들이 진료를 기다리며 재미난 애니메이션을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도 설치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포토존을 운영하기도 하며 아이들 중심의 외래 진찰실을 만들었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에 감사하며

일반 성인 진료과와 달리 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을 대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눈높이다. 정확한 진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자와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아이는 처져 있거나, 아파서 울고 있거나,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겁에 질려 있기에 보호자를 통한 병력 청취가 중요

하다. 그래서 환자를 꼼꼼히 진찰하는 것과 함께 보호자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때로는 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대기 시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감사하게도 보호자 대부분이 잘 이해해주고 있다. 그런 감사함을 잘 알기에 최대한 하고픈 이야기나 궁금한 점 모두 듣고 답하려 한다.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다. 울면서 입원했던 아이들이 웃으면서

퇴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근심 가득했던 보호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꺾꺾 눌러 쓴 편지를 받고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한다. 아이들의 회복력은 경이롭다. 언제 아팠냐는 듯 씩씩하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소를 매일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다.



소아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특화된 서비스와 참된 사랑으로

소아 환자들은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응급증상을 보이고 치료 방법도 달라서 특화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예수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호남지역 최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소아응급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

고, 신속한 검사와 입원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북 권역 내 심야 시간과 공휴일 소아응급 진료에 매우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장점을 내세우며 묵묵히 소아응급 진료를 중추적으로 수행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소아 응급질환 중 하나인 장증첩증에 대해 다른 과와 원활한 협진으로 신속하게 적극적인 진료도 펼친다. 최근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에서 장증첩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찾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 전 의료진은 예수님 사랑을 따라 전주에 오신 Keller 박사를 좇아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자의 마음도 보듬으려 노력한다. 분과 과장 간 팀워크 역시 최고임을 자부한다.

마음보다 몸이 빨리 자라는 성조숙증

소아청소년과 박신애 과장

성조숙증은 어떤 질환이며 진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조숙증은 말 그대로 2차 성징이 또래보다 빠르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여자아이의 경우 만 10세, 남자는 11~12세에 2차 성징이 오는데요. 여자아이에서 만 8세 이전, 남자아이에서 만 9세 이전에 오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5~10배 정도 많습니다. 호르몬이 나오면 여자아이는 유방이 발달하고, 남자는 고환이 커지는 등 갑자기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조기에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성장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경우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최종 키가 작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사춘기 동안 여자는 20~25cm, 남자는 30cm 정도 자라는데요, 초등 저학년 때 성조숙증이 와버리면 중학교 때까지 자라야 할 키가 멈추게 돼 물려받은 키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하나요?

먼저 진찰을 통해 2차 성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파악하는데요, 이때 가슴 발달이나 고환 크기 등을 확인합니다. 최근 약물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다른 질환이나 가족력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합니다.

성조숙증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와 x-ray 성장판 검사를 통해 뼈 나이와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여부를 살핍니다. 진단을 위해 뇌 MRI검사나 복부, 골반, 고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나요?

성조숙증 진단 후 최종 키가 작을 것이라 예상되거나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다면 치료하도록 합니다. 여아의 경우 최종 키가 150cm, 남아는 160cm로 많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 나이 경과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느 질환과 마찬가지로 성조숙증 역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데요. 여아는 만 8세 11개월, 남아는 만 9세 11개월 이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늦더라도 그 전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성호르몬 억제 주사 부작용도 있을까요?

성호르몬 억제 주사는 이미 30년 이상 사용하면서 안정성이 검증된 약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주사 맞은 부위가 붓거나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간혹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살이 찐다고도 하는데요, 치료하면서 살이 찌는 건 호르몬 주사가 아닌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조숙증으로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면서 식욕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같은 생활습관을 통해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 체중 관리도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이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 세포에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이 성조숙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햇빛을 자주 쬐는 것도 좋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조금 일찍 세상에 나온 이른둥이

소아청소년과 호요한 과장

12

‘이른둥이’의 정의와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Premature baby(미숙아), Preterm baby(조산아), 출생 체중 기준으로는 저체중 출생아(2.5kg 미만), 극소 저체중 출생아(1.5kg 미만),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1.0kg 미만)로 불립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미숙아라는 말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른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는 엄마의 분만 예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엄마의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분만 예정일을 40주 0일로 계산하는데요. 이른둥이는 37주 0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아이를 말합니다.

이른둥이를 출산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국내 이른둥이 출산율은 1990년대 전체 출생 중 2% 정도에서 최근 9%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출산율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산모 연령대가 높아지고, 난임 시술과 이를 통해 다태아 임신이 많아지면서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둥이 출산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조기진통을 들 수 있습니다. 태아곤란증과 자궁 내 성장지연, 다태아 임신처럼 태아 측이 요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엄마의 감염·고혈압과 같이 모체가 더이상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도 이른둥이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엄마와 태아의 상태와는 별개로 조기 양막파수, 태반 박리, 자궁경부 개대(열림)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이 다양하기에 조산을 예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른둥이에게는 어떤 질환이 찾아올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출생 초기 호흡곤란증후군(RDS)이나 기관지폐이형성증(BPD)과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전신성 감염(sepsis), 괴사성 장염(NEC)과 같은 감염성 질환, 동맥관 개존증(PDA)을 비롯한 선천성 심장질환, 미숙아망막증(ROP)이 있을 수 있고 뇌실내출혈(IVH)이나 뇌백질연화증(PVL)과 같은 질환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의심될 때 재활을 시작하는 게 원칙이며, 건강하고 따라잡기를 잘하고 있는 이른둥이에게는 예방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간혹 호흡기 문제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오래가는 경우, 산소와 함께 산소포화도·심장 박동을 감시하는 장치를 준비해 퇴원하기도 합니다. 경구 수유가 어려운 아이는 튜브 영양공급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신생아 소생술도 교육해 응급 상황을 대처하도록 합니다. 이른둥이만을 위한 RS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른둥이가 또래 아이와 큰 차이 없이 자라는 걸 따라잡기라 하세요. 따라잡기 성장과 발달을 가장 신경 써서 살펴야 합니다. 늦어도 만 2세 이전에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만일 4~6세까지 성장이 부족하고, 발달이 지연된다면 다른 원인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생후 12개월 이내에 따라잡기를 하기에 성장에 맞춘 적절한 영양공급이 필수적이며,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외적인 요소, 즉, 쾌적하고 안정적인 집안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



낮설지만 편안하도록 마음도 주의깊게 살피며

43병동

43병동은 신생아부터 만 15세 미만 청소년까지 소아·청소년을 돌보는 병동이다. 모두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기에 따스하고 세심한 돌봄이 필수다. 언제나 이를 마음에 새기고 손길 하나하나에 사랑과 책임을 담아 아이들 곁을 지키며 따듯하고 신뢰받는 병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밝고 안전한 병동

소아병동에는 연령도 질환도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다. 신생아부터 만 15세 미만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갖가지 질환으로 병동을 찾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상 43병동은 아이들 눈높이와 다양한 질환에 맞춰 전문적인 간호를 펼친다. NICU에서 근무하는 최미정 수간호사 관리 아래, 각각 한 명의 책임 간호사와 선임 간호사를 포함해 총 열두 명의 구성원이 함께한다.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총 21개 병상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집이 아닌,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노란색과 녹색으로 칠한 화사한 색감의 벽면에도 이러한 작지만 큰 배려가 숨어 있다. 따듯한 소통과 세심한 돌봄을 통해 아이들 회복 과정에 함께하는 보호자가 안심하는 환경도 만들어 간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 발달단계와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로 마음도 세심하게 살피는 진료와 간호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진심 어린 소통

다양한 나이와 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다. 드라마틱한 회복의 순간과 함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얻는 잔잔한 기쁨도 있다. 반복되는 하루가 모여 커다란 웃음을 만들어낸 순간들처럼 말이다. 입원 초기에 의료진만 보면 울던 아이가 있었다. 따스하고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병원에 머물며 의료진을 보고 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병원에 머무는 동안 아이가 최대한 편안하고 행복하게 치료받도록 하는 것도 의료진의 역할이다. 매일 인사를 나누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놀이를 반복하던 어느 날, 아이는 마침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먼저 다가왔다. 아이의 치료에 지쳐가던 보호자 또한 작은 소통으로 변화된 아이의 모습에 감사의 말을 건넸다. 다정한 그 한마디는 의료진의 피로를 모두 잊게 해주었다. 이처럼 아이들이 보여주는 웃음과 용기, 그리고 따듯하고 진심 어린 소통은 43병동 의료진은 물론, 보호자까지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된다. 간혹 지칠 때면 마음 속 깊이 간직한 그 때를 떠올리며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다.

가장 작은 생명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예수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1986년, 미국 LA카이저병원 신생아 전문의였던 제임스 헤이우드 박사가 전수한 선진 의료기술을 토대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현재까지 한결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작고 소중한 생명을 간호하고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생아중환자실은 총 12병상을 운영 중이며, 신생아 세부 전문의와 1명의 수간호사와 12명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 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의료진은 원활한 소통과 팀워크를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곳은 30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부터 1kg 이하 저체중아, 선천성 질환 또는 출산 중 생긴 심각한 합병증 같은 다양한 고위험 신생아들과 함께하는 병동이다. 아이들 특성상 면역력이 낮고, 신



체 기능이 미숙해 외부 자극이나 작은 감염에도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신생아 변화를 관찰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한다. 이와 함께 단순히 생명 유지를 넘어 미성숙한 장기들과 신경 발달까지 생각하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환아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감과 죄책감, 무력감을 느끼는 부모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관심 있게 살핀다.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마주하는 힘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매 순간 작은 생명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마주한다. 32주 2일에 세상의 빛을 본 쌍둥이 환아들이 만든 기적도 그중 하나다. 이른 아침, 경기도에서 소방 헬기로 이송된 산모는 태반조기박리라는 위험 속에서 출산했다. 처음 만난 쌍둥이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태였다. 첫째 환아는 태어난 직후부터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혈소판 수혈까지 받으며 위기를 넘겼다. 둘째 환아는 태어난 직후 호흡이 불안정해 심폐소생술(CPR)까지 시행해야 할 정도로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치료한 끝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작은 폐가 스스로 숨쉬기 시작하고, 불안정하던 심장 박동도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한 달 반 후 쌍둥이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품에 안겨 퇴원하는 기적을 보여줬다. 그날 두 작은 생명이 활짝 웃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기억으로 남았다. 아픈 아기들을 보며 마음 아픈 순간도 많지만, 이런 기적적인 회복 과정을 볼 때마다 느끼는 보람이 그런 아픔을 상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기억을 안고 앞으로도 작고 소중한 생명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할 것이다.



해외연수생

응우옌 반 티엔 ----- 소속 베트남 Hoang long Clinic ----- 연수과 소화기내과(의사) 연수기간 4. 1. ~ 6. 30.
Nguyen Van Thien

I'd like to share some thoughts about my internship experience at PMC. These past three months have been some of the happiest in my life. I feel incredibly fortunate to have trained here at PMC, where I received such warm welcome from everyone. I had the privilege to participate in and learn from specialized medical activities, while also enjoying delicious Korean meals from the hospital cafeteria every day. In my home country, Korean culture is deeply loved—from K-pop and K-dramas to its cuisine. But during this internship, I finally experienced firsthand what I'd only seen on TV,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s beautiful culture and its kind, hospitable people. Thank you for everything you've given me.



연수과 NCU(간호사) ----- 소속 탄자니아 Muhimbili National Hospital-Mloganzila ----- **자와디 윌리엄**
연수기간 4. 4. ~ 7. 3. Zawadi William

My name is zawadi magesa fr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I thank God to be here in Jesus hospital for 3 months training. I have learned a lot are different procedure which some is new to our country. my another experience nurses team work are very unique and I hope am going to introduce in my country. another experience patient care is very nice. I worked in ICU for six weeks I never see dead body which means they provide good care which in our country is to different. have many experience but lastly the love for all works in Jesus hospital the showed us is immense. God bless you all

마이클 맥스밀리언 ----- 소속 탄자니아 Muhimbili National Hospital-Mloganzila ----- 연수과 ICU(간호사) 연수기간 4. 4. ~ 7. 3.
Michael Maxmillian

I'm thankful to Jesus Hospital for this training. As an OR nurse, I've learned to know instruments, procedures, and stay ahead during surgeries. Being active, focused, and consistent is key, along with proper technique and teamwork for the best patient care.Thanks and regards, Maxmillian Michael from Tanzania.



연수과 수술실(간호사) ----- 소속 탄자니아 Muhimbili National Hospital-Mloganzila ----- **엠마누엘 니코델**
연수기간 4. 4. ~ 7. 3. Emmanuel Nicodem

Hi! I am emmanuel, Currently, I am in training at jesu hospital. As I approach the end of my ICU nurse training at Jesus Hospital,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the ICU and NCU staff nurses, as well as the head nurses, for their continuous support, guidance, and encouragement throughout my training period. Your dedication and professionalism have played a vital role in shaping my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in caring for critically ill patients. Today, I feel more confident in my ability to provide care that meets professional standards, thanks to your mentorship and teamwork. I als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nursing leadership, jesus hospital administration, and the wonderful people of PMCI. Your support created an environment that nurtured learning, growth, and compassion. Thank you all for being part of this important journey in my professional development. With deep respect and gratitude, Emmanuel Nicodem.



3년차 간호사 수련회

일시 2025. 6. 11. (수) ~ 12(목)
장소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강의실



박세빈 · 40병동

3년차 간호사 수련회를 통해 일상에 지쳤던 마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60명의 동기들과 함께하며 간호의 본질을 되새기고 초심을 다잡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강의를 들으며 간호사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큰 힘이 되어준 동기들과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최순관 · 응급실

일상에 지쳐있던 제게 3년차 수련회는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고민을 나누고, 김명애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순희 간호국장님께서 보여주신 진심 어린 응원과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간호사로서 초심과 책임감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간다 수술캠프

선교기간 2025. 5. 17. (토) ~ 25. (일)
선교지 우간다(골리, 줌보)
참가자 외과 김은영, 이유니 과장, 외과 전담 PA 김숙경, 김찬영, 박미영 책임간호사, 강현아 간호사



김숙경 · 외과PA

매너리즘에 빠지고 ‘병원 밖’에서 의료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과연 있을까 하는 질문만 맴돌던 저에게 우연한 권유로 우간다 수술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지병원에서 4일동안 짧고 굵게 일한 이 시간은 제게 한국 병원에서의 피로와는 전혀 다른 ‘생동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찬영 · 외과PA

하루는 진료를 받았던 한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아이의 그 웃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라는 게 나 자신은 힘들 수 있지만 꼭 힘들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 전직원 신앙사경회

- 일시** 2025. 6. 17. (화) 17:30~18:30
6. 18. (수) 07:50~08:20 / 17:30~18:30
- 장소** 예수병원 본관 4층 예배실
- 강사** 박준범 선교사

전주 예수병원이 6월 17일과 18일 양 일 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년 신앙사경회를 개최했다. 직원들은 이번 사경회를 통해 신앙적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간호와 봉사를 다짐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 답사

- 일시** 2025. 6. 28. (토)
- 주관** 국제의료협력단 교육훈련원 / 예수병원 선교국
- 일정** 11:00 예수병원 출발 → 15:00 양화진 선교사 묘원 답사 → 17:00 저녁식사 → 21:00 복귀

지난 6월 28일,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과 선교국 주관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원 탐방이 진행되었다. 한국 의료 선교의 초석을 다진 선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며, 이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예수병원 의료선교 신안군에 건넨 따뜻한 의료 손길

일시 2025. 8. 15. (금) 06:00~21:00
장소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전주 출발



신의도 도착

해남우수영여객선
임시터미널

총 3시간 12분
전주 예수병원(출발)
해남우수영여객선임시터미널(2시간 27분)
신안군 신의면 복지회관(43분)

푸른 바다 너머 섬마을에 희망을 전하다

전주 예수병원이 국내외료선교부, 국제의료협력단, 그리고 전주 누가외과연합의원과 함께 전남 신안군 신의면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총 28명의 의료진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섬으로 이루어진 신의면을 찾았다. 이들은 내과와 외과 진료를 통해 110여 명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했으며,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100여 명에게는 수액 치료를 제공하고,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 지도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따뜻한 의료의 손길을 건넸다.

소감한마디

예수병원 선교국 송재선 국내선교부장

잠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내 의료선교로 의료의 손길이 부족한 많은 도서지역에 도움이 되지 못해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저 멀리 신의도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내에서 봉사자 모집을 했을 때 말려야 할 만큼 많은 선생님들의 지원이 있었고 여러 업체들의 의약품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머나먼 여정에도 무더위에 진료 및 치료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은 팀원들의 모습에 그동안의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주님의 뜻인지 모든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의 예수병원에서 값없이 주는 국내외료선교로 예수병원의 본질을 잘 이어나갈 수 있어 영광이고, 국내외료선교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듯하여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Healing Mission

신의면 복지회관





나를 새로이 빛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글 이비인후과 한주희 과장

저출산 시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커다란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커 보이는
결혼과 육아라는 변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커다란 상수 앞에서는
자그마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생명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으로 매일 더
근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육아는 전쟁이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 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수십 바퀴 돌며
‘이게 현실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아이와 하루를 살다 보면 기쁨이 있고, 또
억지로라도 웃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힘들었던 기억은 멀어지고, 웃으며 배운 것들이 마음에 더
많이 남습니다.

“그 힘든 길 왜 하냐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흔한 대답이 정해져 있지요.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다”거나 “힘들지만 행복하다”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육아는 조금
더 근사한 사람으로 바뀌준 일이니까요.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어느 인간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사이입니다.
친구는 안 맞으면 그냥 거리를 두면 됩니다. 직장 동료는
조금 불편해도 퇴근하면 안 봐도 되고, 언제든지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종신
계약’ 같은 관계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 성격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 제가
화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전공의 시절보다 더한 화가 내 안에 있을 줄이야!
아이는 거울보다 더 정직하게 제 단점을 비춰줬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육아를 제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했지만, 5분도 안 가서 무너지고 ‘오늘은
기도하며 여유 있게 해야지!’ 생각했지만, 10분 만에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어요.
결국,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의 고백이 제 삶이 되었습니다.
아이로 인해 제 한계를 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저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인내가 생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고, 제 마음에 더 많은 여백이
생겼습니다. 육아는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는 자리.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성화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춘기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고, 한숨 쉬고, 도망치고 싶어질
때도 많았지만, 그 수많은 좌절의 순간들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아이와의 갈등을 견뎌내는 덕분에 제가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과 육아를 점점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아이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앞날을 책임지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보다 앞선 기대감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막무가내 믿음에 의지해봅니다.
막상 아이를 길러보니 아이가 주는 사랑, 그 벅찬 선물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잘 자라고, 잘 지내더군요. 아이들은
엄마의 걱정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통해 매일 조금씩 더 근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덕분에 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며,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유연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결혼과
육아라는 변수는 정말 커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더 큰 상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인생의 변수는 너무도 하찮습니다. 생명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다

광주기독병원 선교회

광주기독병원 선교회
탄생에는 5대 원장이었던
Dr.카딩턴 선교사가 함께한다.
의료 선교사로서 25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역한 그의 뜻을
이어 복음의 빛을 전하러 떠난
방글라데시 여정이 그 시작이다.
'광주의 성자'였던 카딩턴
선교사의 삶을 통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20년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낙후된 의료환경에 놓인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

글

선교회 김위황 회장
선교회 김동호 사무국장

Q. 어떤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1949년부터 1974년까지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서 사역하다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이어간 카딩턴 선교사의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통기 진료소(다카 구 도시 빈민 지역)와 텔레구 진료소(텔레구 족 빈민 지역)를 운영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광주기독병원 직원들이 '카딩턴 선교사 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처음엔 선교 현금만 하다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의 빛을 보답하기로 뜻이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 9월 30일 방글라데시로 첫 단기의료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여정에서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효율적인 하나님 선교를 꿈꿨고, 이듬해 1월 '광주기독병원 선교회'가 출발했습니다. 비록 겨우 팀원 16명에, 내과와 이비인후과, 치과가 모인 작은 의료팀이었고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작은 겨자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원내를 비롯해 국내, 해외, 북한, 대외사회봉사, 신앙훈련, 문서선교, 전도단 등 여러 부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잊지 못할 사역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말 1박 2일간 소안도 소안중앙장로교회 의료봉사 활동을 다녀온 전남대 의예과 1학년 전서연 학생의 기독병원 섬 의료봉사 소감입니다. 참여자 중 가장 어린 봉사자로 떠나기 전 짐이 되진 않을까 걱정을 안고 떠난 여정은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한 진통제마저 너무 귀한 약이 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고 살가운 대화를 나누며 교감하는 순간들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이들, 약하고

힘없는 이들 곁에서 그들을 섬기며 치료하고 기도하는 크리스천 의료인으로서의 미래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말을 떠올리며 봉사하며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저 단순한 봉사 활동이라 생각했던 여정이 많은 깨달음을 안겨주었고,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Q. 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나요?

2005년 광주 광산구 월곡동과 하남공단에서 이주 노동자 일만 명 가량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방문한 김위황 국내선교부장이 외국인문화센터, 외국인선교 같은 단체들과 연합해 설립했습니다. 이후 양방을 비롯해 치과, 한방, 약사들까지 합류했고, 매주 다양한 진료와 검사, 치료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병원선교회는 매달 진료를 계속하였습니다. 2019년 김위황 선교부장이 방글라데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후부터는 월곡동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광주기독병원 해외의료봉사팀은 병원 직원을 비롯해 병원 출신 외부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SONO, EKG, Portable X-ray, 치과 진료 장비 등 의료기기를 갖춘 해외 진료 경험이 풍부한 봉사단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여 년간 세계 각지의 현지 의료인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낙후된 의료환경에 놓인 현지인들이나 전쟁, 기아로 신음하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올해는 개원 12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의 케냐 해외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해외의료봉사가 아프리카 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냐 해외의료봉사가 낙후된 보건의료 환경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바꾸는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도(正道)를 걸어가는 병원으로 남아주기를

김귀완내과 김귀완 원장

든든한 지원 속에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예수병원과 김귀완내과 김귀완 원장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발전해나갔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끈끈함을 이어가며 따로 또 같이 함께하고 있다.



실력을 키우고 역량을 펼쳤던 그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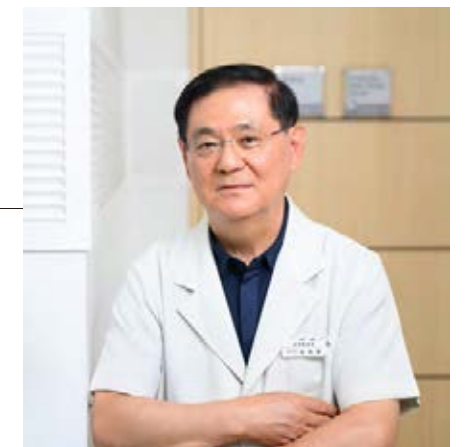
1979년 인턴으로 시작된 예수병원에서의 삶은 장장 25년간 이어졌다. 그 시간은 김귀완 원장에게 그저 물리적인 시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준 곳이자, 덕분에 기른 역량을 마음껏 펼친 곳이기 때문이다. 손꼽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준 트레이닝도, 견문을 넓히게 해준 두 번의 유학도 잊을 수 없다. 1992년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6개월간 감염과 중환자 관련 공부를 한 데 이어, 1999년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암센터에서 폐암 분자생물학을 배우며 한 단계 더 성장했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의 경험은 훗날 예수병원에 다학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자양분이 되기도 했다. 김귀완 원장이 처음 스태프로 근무할 때만 해도 예수병원은 호흡기 내과와 순환기 내과가 분리돼 있지 않았다. 내과 과장에 부임한 후 두 과를 분리해 초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장으로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의 토대를 닦았다. 기관지 내시경 발전에 앞장서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도내 알레르기 클리닉 성장을 이끌었다. 수많은 환자를 보며 논문도 꾸준히 쓴 까닭에 자타공인 ‘일벌레’로 유명했다. 그가 이처럼 한순간도 헛되지 흘려보내지 않은 데에는 세 분의 멘토 역할이 크다. 한 분은 대학 시절 은사인 전남대학교 의대 박경옥 교수고, 두 분은 예수병원에서 만난 주보선 박사와 이양근 박사다. 대학 시절 은사에겐 늘 공부하는 자세를, 두 분의 박사에겐 환자를 돌보는 자세를 배웠다. “레지던트 시절 만난 주보선 박사와 저를 호흡기 내과로 이끌어주신 이양근 박사님 모두 환자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병원을 떠난 지금도 그분들께 배운 자세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귀완 원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의학과 석·박사
전)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교수
전) 전주예수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과장
전) 전주예수병원 부원장
김귀완내과 원장

지역사회 중심을 잡고 나아가도록

“제가 호흡기 내과 분과 1세대예요. 2004년 개원할 때만 해도 보통 소화기나 내분비내과만 있었지 호흡기 내과 특화 병원은 전무후무했습니다. 호흡기 내과 볼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감히 도전에 나섰고, 지금껏 뚝심 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개원 당시만 해도 실패할 거라는 주변의 우려가 컸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병원으로는 전라남북도 최초의 호흡기 전문병원으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첫발을 내디디는 상황이었다. 전문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EMR(전자의무기록, 환자 의료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폐 기능 검사기를 도입하는 선구자적 행보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 다행히 우려는 현실이 되지 않았고, 만성기침 특화 치료로 알려지며 전북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기도에서까지 찾아오는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예수병원을 떠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마음의 빗을 안고 있다. 호흡기 내과라는 특화된 분야의 역량을 키워준 곳을 떠났다는 미안함이 크기 때문이다. 그 빗을 갠고자 지금까지도 호흡기 내과 제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교과서적인 치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병원으로 남아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물질적 이익만 좇기보다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고, 전문적인 치료를 실행하는 종합병원 말이다. 정도를 걸어가는 병원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을 잡아줬으면 한다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병원이 아닌, 올바른 병원으로서 오래도록 남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전북권역 난임 임신부 심리상담센터 개소

7월 29일(화) 방송
KBS NEWS



정신건강의학과 최말레 과장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 문을 연 전북권역 난임 임신부 심리상담센터. 난임과 임신, 출산으로 힘겨워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곳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과 경기, 대구, 경북 등 전국 12곳에 난임 임신부 심리상담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센터는 예수병원과 협업해 고위험 임신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의료와 심리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말레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소아재활

8월 24일(일) 방송
닥터 MBC



재활의학과 김태환 과장

소아재활은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의 능력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으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학입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뇌성마비, 그리고 다운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질환, 신경근육계 질환, 발달지연,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사경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재활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아동별로 발달의 단계도, 자라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	06.20	크리스천투데이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이사장·병원장 이·취임식
2	06.30	전북일보	전북지역 8개 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
3	07.09	전북도민일보	생명사랑 위기대응 심포지엄 개최
4	07.16	이뉴스투데이	캄보디아 International University(이하 IU대학) 총장, 예수병원 방문
5	07.21	국민일보	백수경 에코산부인과 원장, 예수병원에 발전 기금 3000만 원 기부
6	07.25	파이낸셜뉴스	페렴 적정성평가 6연속 최고 등급
7	07.25	스포츠서울	구바울기념 의학박물관서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전시
8	07.29	뉴시스	"필수보건의료 협력 확대"... 전주시의사회·예수병원 맞손
9	07.29	의학신문	제7회 간호대생선교캠프 성료
10	08.04	전북일보	전주 화산지구대와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협약
11	08.11	노컷뉴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전주예수병원 1등급
12	08.20	한국기독교보	섬 주민 찾아가 무료 진료로 사랑 실천

PMC NEWS는 병원을 더욱 신뢰하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1

크리스천투데이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이사장·병원장 이·취임식



6월 20일 병원 본관 예배실에서 제26대 병원장 취임예식과 함께, 제22대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이사장 이임 및 취임 예식을 가졌다. 예배 후 이·취임식에서는 병원과 재단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임 고영환 이사장(전주금성교회)의 노고에 감사하고, 제26대 신총식 병원장과 제22대 임현희 이사장의 취임을 알렸다.

전북지역 8개 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로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내 종합병원은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남원의료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8곳이다.

예생명사랑 위기대응 심포지엄 개최



생명사랑 위기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일 전국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초청해 청소년 자살을 주제로 토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 사례 공유 △원광대학교 양찬모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청소년 자살의 이해와 면담’ 발표 △김상초 전주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장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개입 및 지원방안’ 발표이다.

캄보디아 International University 총장, 예수병원 방문



캄보디아 International University(이하 IU대학) 총장이 지난 13일 예수병원을 방문해 상호 협력과 친목을 다졌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센속IU병원 병원장과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재활의학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로 재활병동을 개설한 전주 예수병원의 특화된 재활센터를 견학하고 더 나아가 재활의학과가 전무한 캄보디아 현지 정착 유도를 위해서다.

백수경 에코산부인과 원장, 예수병원에 발전 기금 3000만원 기부



산부인과 출신 동문이자 에코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백수경 원장이 병원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예수병원이 추진 중인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동문 의료진들의 마음을 모으는 귀한 나눔의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페렴 적정성 평가 6연속 최고 등급



6차 페렴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페렴으로 입원해 항생제(정맥내)를 3일 이상 투여한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국 599곳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예수병원은 종합점수 98.5점을 획득해 전국 종합병원 평균 점수인 92.2점을 크게 상회했다.

7 스포츠서울

구바울기념 의학박물관서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전시



‘기억난 은애(恩愛)’ 기획전을 구바울기념 의학박물관에서 7월 24일부터 말일까지 가진다. 지난 5월 ‘2025 박물관 문화유산 지원’ 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예수병원 구바울기념 의학박물관은 근현대 예수병원에서 사랑과 은혜로 헌신한 역대 병원장 정리 및 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병원의 발전 뒤에 숨은 여러 인물의 헌신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번 기획전은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이들의 노력과 발취를 재조명해 보고 묵묵히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자 기획됐다.

8 뉴시스

“필수보건의료 협력 확대”...
전주시의사회·예수병원 맞손



전북 전주시의사회와 전주예수병원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필수보건의료분야 협력 모델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의사회와 예수병원은 상호 협력을 통해 퇴원환자들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고도화와 필수보건의료분야 협력, 지역의료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9 의학신문

제7회 간호대생선교캠프 성료



제7회 간호대생 선교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간호대학 3~4학년 학생 35명이 참여해 기독교 의료인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젠가는 슬기로운 선교캠프’를 주제로 다섯 명의 메인 스피커와 함께한 ‘미션 챌린지’, 예수병원 직원 찬양팀 J.Crew의 찬양예배, 의료선교 사례 공유, 그룹 토의 등이 진행됐다.

10 전북일보

전주 화산지구대와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협약



치매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화산지구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치매노인, 아동 등의 실종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도내 대형병원의 협력을 통해 치매노인·아동의 실종 예방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 구축 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11 노컷뉴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전주예수병원 1등급



이번 1차 영상검사 적정성평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동안 CT와 MRI, PET 검사를 시행한 입원 및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전국 1694곳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예수병원은 종합점수 96.8점을 획득해 전국 종합병원 평균 점수인 86.8점을 크게 상회했다.

12 한국기독교공보

섬 주민 찾아가
무료 진료로 사랑 실천



국제의료협력단(PMCI)의 협력으로 전남 신안군 섬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예수병원 소화기내과 송재선 과장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이번 의료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북의 건강한 미래를 밝혀주세요.

후원 형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지로, ARS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 기금 예금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후원 계좌 국민은행 751901-01-465000
신협 131-020-826222
전북은행 510-23-0317364
농협 658-01-031404

후원 방법에 관해 예수병원 발전후원회(063-230-886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6~8월 기준 (가나다 순)

예수병원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박성광, 이병호
예수병원간호국
강경범, 전영민
조신광, 김병조

1백만원 이상

김경진(산부인과)
남원노회(강광원)
박진용, 안상범
이광영, 이순안
허지은(백미정), 권혁재
황지옥, 무명

전북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기금

3천만원 이상

백수경

1천만원 이상

김경아(산부인과), 김황조

1백만원 이상

송경은, 정영철(정영철피부과)



예수병원 진료일정 안내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가정의학과 230-1510	조충환	노인의학, 성인병, 감염진, 금연	월, 수, 목	월, 목	
	이진희	성인병, 건강검진, 영양치료, 비만관리, 금연	화, 수, 목, 금	화	
	이재성	성인병, 감염진, 건강검진, 영양치료, 금연	월, 화, 금	월, 수	
	이종민	만성질환, 성인병, 검진초음파	-	화, 수, 목, 금	
	서의을	성인병, 건강검진, 검진초음파	-	금	
	최미림	건강검진(위장관, 간, 담도, 회장질환)	월~금	월~금	
	김호철	건강검진(치과)	월~금	월~금	
	오종은	건강검진(부인과)	월~금	월~금	
	이정재	-	-	-	
내분비내과 230-1300	송선경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월, 수, 목, 금	월, 수	
	김지혜	당뇨병, 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내분비질환	월, 화, 목, 금	화, 목	
	백초옥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월, 수, 목	월, 화, 금	
	김선희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화, 수, 금	수, 목, 금	
류마티스 내과 230-1300	이연경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월, 화, 목	월, 화, 목	
소화기내과 230-1300	조진웅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월, 화, 목	-	
	조용근	간, 위장관질환	월, 목, 금	화	
	김지웅	간, 위장관, 담도, 회장질환	화, 수, 금	화, 수	
	정금모	간, 위장관질환	월, 수	월, 목	
	양민아	간, 위장관, 담도, 회장질환	화, 목, 금	금	
	김병선	간, 위장관, 담도, 회장질환	월, 수, 목	-	
	송재선	간, 위장관, 담도, 회장질환	화, 목	월, 수, 금	
	이원동	간, 위장관, 담도, 회장질환	월, 수	월, 금	
	양성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	화, 수, 금	
	이순관	간, 위장관, 담도, 회장질환	수, 금	월, 목	
	이상욱	간, 담도, 위장관, 회장질환	화	수, 목	
	박호경	간, 위장관, 담도, 회장질환	-	화	
	노건주	간, 위장관, 담도, 회장질환	-	금	
	내과	류재영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 화, 목, 금	-
		전성희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천성 심질환	수, 금	수, 금
박종필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월, 화	수, 목	
송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수, 목	월, 목	
오성식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화, 목	화	
김선화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심신, 인공심박동기, 제세동기, 전극도자절제술	수, 금	수, 금	
박선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목, 금	화, 금	
이지하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월, 수	월, 목	
문혜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	화	
심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화	-	
순환기내과 230-1350		선인오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목
		조아영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금	화, 목, 금
		오주환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월, 화	월, 화, 금
		이하은	고혈압, 급성신손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질환,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약물중독	수, 목, 금	월, 수
		신장내과 230-1300	선인오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조아영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금	화, 목, 금	
오주환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월, 화	월, 화, 금	
이하은	고혈압, 급성신손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질환,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약물중독		수, 목, 금	월, 수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내과	혈액종양 내과 230-1300	박효숙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화, 수, 금	월, 목
		이가든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월, 목	화, 수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230-1360	곽진영	폐암 및 폐종양, 폐결절,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월, 수, 목	월
		이종철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화, 금	월, 화, 금
		최경화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월, 화, 목	화, 목
		양현주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월, 목	수, 목
		김병관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수, 금	월, 수, 금
		김성민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화, 금	수
	마취 통증의학과 230-1580	김유일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 수	월, 수
		이지혜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화	화
		권영은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금	월~금
		오지윤	부위마취, 정형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허현주	부위마취, 산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한동수		전신마취, 부위마취, 복강경마취, 정형외과마취	월~금	월~금	
오창환		전신마취, 부위마취, 복강경마취, 정형외과마취	월~금	월~금	
백승민		전신마취, 부위마취, 복강경마취, 정형외과마취	월~금	월~금	
방사선 종양학과 230-1520	이희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김정수	유방암, 자궁암	화, 수, 목	화, 수, 목	
병리과 230-8190	이광민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월~금	월~금	
	주명진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월~금	월~금	
	유설봉	폐병리	월~금	월~금	
비뇨의학과 230-1440	천민우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화, 수, 금	화, 수	
	이강석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월, 목	월, 목, 금	
소아 청소년과 230-1390	장영택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월, 화, 수, 금	화, 금	
	박신애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질환	수, 목	월, 화, 목	
	김미경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월, 금	월, 수	
	호요한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수	-	
	박상호	신장, 성장 질환	화, 목	월, 화, 목	
	곽현미	소아 호흡기	월, 금	월, 수, 금	
	황동진	소아 호흡기	화, 수, 목	수, 목, 금	
	서요셉	-	-	-	
	최종림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김경녕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성형외과 230-1560	이진호	소아응급	평일야간, 주말		
	강동구	안면거상, 뺨띠성형, 눈코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월, 수, 금	월, 수, 금	
	신경과 230-1570	하연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두통	월, 목, 금	월, 화
정병민		두통, 파킨슨병, 뇌전증	화, 수, 목	월, 수, 금	
장혁수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염 질환, 어지럼증	월, 화, 수, 금	화, 목	
신경외과 230-1420	허승곤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수술	-	월, 수	
	신동규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월, 수	월	
	공태식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 내 수술, 응급환자진료	월, 목	목	
	최은석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수, 금	수, 금	
	김효준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응급환자진료	화, 수, 금	월, 수	
	신우람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화, 목	화, 목	

대표전화 1899-1843, 230-8114, 080-077-7575 응급센터 230-8282 진료협력센터 230-8989
※ 진료일정은 2025년 9월 기준이며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전화 확인 바랍니다.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안과 230-1450	송영진	안성형, 일반안과	월~금	월, 수, 목, 금	
	안성현	안성형, 일반안과	월~금	화, 수, 목, 금	
여성 의학센터 230-1500	김경진	부인과종양,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월, 수, 금	월, 수	
	김경아	고위험산모, 복강경수술, 폐경기장애	월, 목	월, 목	
	홍상기	고위험산모,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화, 금	화, 금	
	문정범	난임, 시술관아기시술, 일반산과, 일반부인과, 내시경수술	수, 금	수, 금	
	정태원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화, *수, 목 *장애전화 산부인과 진료	화, 목	
영상의학과 230-8380	유은애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김수정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이미숙	흉부	월~금	월~금	
	김원환	인터벤션	월, 화, 수, 목	월, 화, 수	
	강동민	복부, 비뇨생식기	월~금	월~금	
	정수연	흉부·심혈관계	월~금	월~금	
	노경희	유방	월~금	월~금	
	박범균	인터벤션	월~금	월~금	
	최진술	복부, 비뇨생식	월~금	월~금	
	배현수	인터벤션	월~일	월~일	
일반외과 230-1400	김은영	외과응급	금	월, 목	
	문재영	소화기질환, 일반외과	수, 목	금	
	김우영	간, 담도, 회장, 탈장, 복강경	화, 금	화, 금	
	이유니	간, 담도, 회장, 탈장, 화상, 복강경, 외상, 일반외과	월, 수	화, 수	
	김강태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 복강경, 탈장	월, 목	월, 목	
	정진웅	대장암, 항문질환, 탈장, 소아외과, 일반외과	화, 금	화	
	이종영	위암 및 상부위장관암, 복강경, 비만수술	월, 목	월, 목	
	양유성	상부위장관(위, 소장), 일반외과, 비만수술, 화상	수	월, 수, 금	
	외과	김철승	유방·갑상선	화, 금	화
		김예정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월, 목	목
최은혜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수, 금	월, 수, 금	
혈관이식 외과 230-1400		김철승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화, 금	화
	한규담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유방·갑상선	월, 수, 금	화	
	김하람	유방·갑상선	화	목, 금	
소아외과	김예정	소아외과	월, 목	목	
흉부외과	서연호	일반 폐질환, 다한증, 기흉	수, 금	월	
국제진료소	이대영	외국인진료, 일반외과, 비만수술, 완화의료(호스피스)	목	수	
응급의학과 230-8280	전우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호권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전용규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이상경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박홍민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백종원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오근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심동우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유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오준현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최형수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민수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장해운	소아응급	월~일	월~일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응급의학과 230-8280	한민정	소아응급	월~일	월~일
이비인후과 230-1480	천경두	귀(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월, 목	월, 목
	이시영	코(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어지럼증	월, 금	화, 목
	한주희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어지럼증	화, 목	월, 수, 금
재활의학과 230-1460	윤용순	뇌신경재활, 요통 및 운동치료, 하지교정, 소아재활, 부정렬증후군, 족부클리닉	월	월
	윤성봉	중추신경계재활(뇌 및 척수손상), 근전도, 노인재활, 연하재활	월, 화, 수, 금	월, 화, 수
	이광재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오십견, 근 골격초음파클리닉, 보톡스클리닉	화, 수, 목, 금	월
	이정후	중추신경계 재활, 신경 근골격계통증, 의지/보조기	화, 수, 목	화, 수, 목, 금
	유기빠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족부클리닉, 통증재활, 호흡/연하재활, 근전도	월, 화, 수, 금	화, 목
	김은실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수, 목	화, 수, 목, 금
	최줄리	노인재활, 연하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화, 목	월, 수, 목, 금
	김태환	중추신경계 재활, 근전도, 연하재활, 근골격계재활, 소아재활	월, 수, 목, 금	월, 화, 금
	정신건강의학과 230-1550	최말래	여성정신건강클리닉, 정신치료, 기분장애(우울 & 조울), 불안장애(공황장애, 사회공포증), 횡병, 신체형장애, 불면증, 조현병	월, 화, 목
한영일		치매클리닉, 노인정신건강, 기질성 뇌기능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월, 화, 목	목
박경환		-	월, 수, 목, 금	월, 화, 수, 금
정형외과 230-1430	정의섭	고관절, 골반	월, 수	-
	신총식	견·주관절,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월, 목	-
	김태호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화, 금	화, 금
	김종길	외상, 족부, 족관절	화, 목	화, 목
	김경태	손목질환, 손목관절내시경, 외상, 스포츠손상	월, 수	월, 수
	송경진	척추	화, 목	-
	이상영	슬관절(무릎관절), 족부·족관절, 스포츠의학	수, 금	수, 금
진단검사의학과 230-8751	김영숙	임상미생물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세포유전학검사, 임상경검학검사	월~금	월~금
	최인선	분자생물학, 수혈의학, 특수화학, 조직접합성검사, 진단면역	월~금	월~금
	배태원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요검검, 검사정보학	월~금	월~금
치과 230-1540	송윤관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최현미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수, 목, 금	월, 수, 목, 금
	박종덕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피부과 230-1490	이진호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질환(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종양	화, 목, 금	-
	송지섭	일반 피부질환, 피부 레이저	화, 수, 금	월~금
해의학과 230-8780	김민우	근골격, 종양,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행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문은하	근골격, 종양,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행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You Make Me Warm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병원 - 예수병원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Tel. 063.230.8114 www.jesushospital.com